



가장 얇고 배터리 강화된 AI 폴더블폰... 화면 주름도 개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폴더블 폼팩터+갤럭시 AI 결합
구글 협업으로 제미니AI 앱 탑재
퀄컴 '스냅드래곤83세대' 착장
헬스케어 웨어러블 '링'도 첫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새 폴더블폰 '갤럭시 Z6 시리즈'를 대중에게 최초 공개했다. 갤럭시 Z6 시리즈는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와 늘어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한다. 특히 단점으로 지목됐던 내부 화면 주름도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첫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도 공개하며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가시화한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를 개최하고,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AI를 결합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전격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갤럭시 Z6 시리즈는 물론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7 ▲갤럭시 버즈3 등 신제품이 소개됐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는 궁극의 성능과 완성도를 자랑한다"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중심지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에서 개최된 하반기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에서 혁신적인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AI를 결합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전격 공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게는 가볍게 내구성은 강화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인 갤럭시 Z6 시리즈는 AI 기능 탑재와 함께 가벼워진 무게와 늘어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한다. 삼성은 구글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에는 최신 '구글 제미니(Gemini)' 앱이 탑재돼 언제든지 AI 기

반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어시스턴트'를 호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화면 하단의 모서리를 끌어 올리거나 '헤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제미니 오버레이(Gemini overlay)'가 실행돼 정보 습득, 글쓰기, 계획 세우기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슬림해진 디자인과 함께 내구성도 한층 강화했다. 외부 충격을 보다 분산시킬 수 있도록 듀얼 레일 힌지(Hinge)의

구조와 설계가 한단계 더 진화됐다. 메인 화면의 재질을 강화해 그간 지적됐던 화면 주름도 개선됐다. 또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3세대'가 탑재됐다. 이 칩셋은 고성능 CPU, GPU,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결합해, AI 프로세싱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통화 중 실시간 통역, 텍스트 번역, 생성형 사진 편집 기능 등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구현된다.

진화된 배터리 수명도 눈에 띈다. 갤럭시 Z 폴드6의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하나 배터리 수명이 길어졌다. 갤럭시 Z 플립6는 4000mAh 배터리를 탑재해 대폭 확대된 배터리 용량을 자랑한다.

◆오는 24일 전 세계 출시... 국내는 12일부터

삼성전자는 7월 24일부터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갤럭시 버즈3 시리즈'를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갤럭시 Z 폴드6는 256GB, 512GB, 1TB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222만 9700원 ▲238만 8100원 ▲270만 4900원이다. 갤럭시 Z 플립6는 256GB, 512GB로 출시되고, 가격은 각각 148만 5000원, 164만 3400원이다. 갤럭시 Z 폴드6는 실버 세도우, 핑크, 네이비 색상으로, 갤럭시 Z 플립6는 블루, 실버 세도우, 옐로우, 민트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는 단독 색상이 출시된다. 갤럭시 Z 폴드6는 크래프트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갤럭시 Z 플립6는 크래프트 블랙, 화이트, 피치 색상이 단독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의 국내 사전 판매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7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에 불과

ESG 의무화에도 장애인 고용 부진
장애인 고용 부담금 220억 달할 듯

7대 금융지주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3.1%에 한참 못 미치는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장애인 채용이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7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BNK·DGB·J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룹 전체 임직원 대비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0%에 그쳤다. 가장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한 KB금융이 임직원의 1.47%(395명)를 장애인으로 고용했지만,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주요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전체 고용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대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174억원 규모였다.

은행별 고용 규모를 고려해 추산한다면, 올해 7대 금융지주의 9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부산·iM·경남·광주·전주)이 내야 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2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내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채용 다양성(여성·보훈자·장애인) 역시 기

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금융기관의 장애인 임직원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금융업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2.3%(2022년 기준)다. 국내 금융기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장애인 고용이 활발한 독일(2021년)과 호주(2018년)의 전체 금융권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각각 4.7%를 기록해, 국내 금융기관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 "산업별 특성 따라 지원책 있어야"

국내 금융지주사의 장애인 채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7대 금융지주의 총 장애인 임직원 수는 1076명으로 전년 대비 26명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3개 금융지주(KB·신한·우리)는 오히려 장애인 임직원 수를 줄였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전 세계 청년과학기술인 모여 지속가능 미래·역할과제 공유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
차세대 리더스 포럼 개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청년과학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대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 '차세대 리더스 포럼'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4면〉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대회'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 및 차세대 한인과학기술자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차세대 리더스 포럼은 국내외 한인 청년과학기술인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 역할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청년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더 나은 미래와 한국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발언은 박배호 미래세대위원회 공동위원장(건국대학교 총장석교수(물리학))이 맡아 미래세대위원회 역할과 비전을 소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미래세대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과학기술인의 창의적인 도전과 학문 간 융합 및 응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청년과학기술인 중심의 지속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대통령, 인태사 방문 하와이 순방 마무리... 나토 참석차 워싱턴으로 / 사진 뉴스스
▲ 여민생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국민의힘 김 여사 문자 '읽씹' 논쟁 일주일째... 총선 책임론 공방도
▲ 원희룡 "당장 갈라지면 다 죽어... 최악은 내부에서 싸우는 것"



▲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법 당론 추진... 공소장·중수처 신설
▲ 조국혁신당 '임성근 구명 녹취록'에 "VIP 누군지 밝혀야" / 사진 뉴스스